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막바지

광주시 “부당한 지시 압력 없었다...공정·적법하게 진행”

검찰, 수사 관련 일체 합구...“10월 중 1차 결과 발표할 것”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관련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광주시청과 광주시의회, 광주도시공사, 시 행정부시장 채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담당 공무원을 대거 소환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반면, 광주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을 추진했고 부당한 지시나 압력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13일 광주시와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핵심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다.

다른 하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평가표 등이 유출된 경우 등이다.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광주시는 지난해 11월8일 민간공원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중앙공원 1지구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주), 중앙공원 3지구 금호산업(주), 중앙공원 4지구 금호산업(주), 중앙공원 5지구 금호산업(주)이 각각 선정됐다.

선정 직후 일부 탈락업체들이 평가 과정의 불공정성, 선정 결과 사전 유출 등을 이유로 이의 신청을 하면서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특정감사 결과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재평가를 통해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6곳 중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 등 2곳을 변경했다.

중앙공원 1지구 광주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지진 반납하면서 2순위인 (주)한양이 선정됐고, 중앙공원 2지구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금호산업(주)에서 (주)호반으로 바뀌었다.

논란이 된 특정감사 착수 배경

과 관련해 광주시는 ‘의혹 해소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당시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경찰 수사 가능성과 탈락한 업체들의 소송 가능성이 제기됐다.

광주시를 담당하는 경찰 정보관은 정중제 부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등에게 수차례 경찰의 수사 가능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감사위에서 의혹 해소 차원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돼 전체 6개 지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김석웅 시 환경생태국장은 “시에서는 평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감사위에서 확인하기로 했다”면서 “감사위가 11월14일 경합이 치열하면서 근소한 차이로 선정된 중앙2지구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원녹지과의 계량평가에서 무

시할 수 없는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위가 표본조사를 실시한 첫날 오류가 발견돼, 향후 탈락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될 가능성이 컸다”며 “소송에서 패소하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체가 좌초될 수 있어 평가오류를 바로 잡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재평가하면 향후 탈락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분안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 평가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정감사 과정에서도 부당한 외압이나 지시는 없었다는 게 광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용섭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변경과 관련 어떤 부당지시나 개입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다른 쟁점인 공무상 비밀누설 관련 혐의는 사전에 평가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여부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되기

전 평가결과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애초 시 담당공무원이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 등에게 선정 결과를 알렸고 이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시의회의 다른 장구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규모 압수수색에 이어 공무원 소환 조사를 하고 있지만, 핵심 인물인 감사위원장이나 정중제 행정부시장 등은 아직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최근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수사와 관련해 일체 합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에도 직권남용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정도라면 이미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번 수사와 관련해 “이번 달 안에 1차 수사 결과를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산처럼 덮여있던 토사사라진 도로 지난 12일 대풍 ‘미탁’의 피해복구가 한창인 강원도 삼척시 초곡마을에서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들이 토사로 덮여있던 마을 도로를 청소하고 있다.

광주·전남 최근 3년 사이버 학폭 706건

최근 3년간 광주와 전남지역 사이버 학교폭력이 총 706건이 발생한 가운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8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발생 건수는 2016년 2122건에서 2017년 3042건, 2018년 327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 3년간 증가율은 54.1%에 이른다.

이중 광주는 2016년 81건, 2017년 122건, 2018년 162건 등 총 365건이 발생했다.

전남은 2016년 69건, 2017년 88건, 2018년 184건 등 총 341건의 사이버 학교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광양해상서 기름 유출...선장 불구속 입건

여수해양경찰서는 12일 부주의로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화물선 선장 A씨(65)를 불잡아 조사 중이다.

전날 오전 11시19분쯤 광양시 금호동 부두 계류 중인 1571톤급 화물선 S호(승선원 11명)가 급유선에서 기름 수급을 받던 중 병커C유 8리터가 바다로 유출됐다.

급유선 사무장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은 민간방제업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방제정, 광양해경 구조정 등 선박 5척을 투입했다.

해경은 사고 선박 주변 200m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출착포 80kg 등 방제 기자재를 사용, 약 2시간만에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해경은 급유선에서 기름 수급을 마치고 마무리 작업 중 선수 갑판에 있는 에어 벤트(공기를 배출하거나 유입하는 구멍)를 통해 기름이 해상으로 흘러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S호 선원과 급유선 사무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진입로 착각 역주행 사고로 5명 중경상

구례에서 1톤 트럭 운전자가 국도 진입로를 착각해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차를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2차 추돌사고까지 발생해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12일 구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58분쯤 전남 구례군 산동면 한 왕복 4차로에서 차량 3대가 충돌·추돌했다.

조사 결과 1톤 트럭 운전자 A씨(65)가 도로를 역주행을 하던 중 마주오던 스포티지 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후 스포티지를 뒤따르던 렉스턴 차가 충돌 사고현장을 덮쳐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와 스포티지, 렉스턴 운전자와 동승자 등 총 5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국도 진입로를 착각해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입건한 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수 선착장서 50대 선원 바다에 빠져 숨겨

12일 오전 0시46분쯤 여수시 중흥동 한 선착장에서 선원 A씨가(58) 바다에 빠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해경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은 A씨가 정박 중이던 유조선으로 복귀하던 중 발을 헛디뎈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A씨가 음주상태는 아니었는지, 선착장에 유조선이 잘 정박해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술에 취해 안경 쓴 택시기사 폭행한 30대

목포경찰서는 12일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씨(39)를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20분쯤 무안 남악신도시에서 목포로 가는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씨(53)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해 택시를 탄 후 갑자기 B씨의 머리를 밀치며 “살 살 달려라. 동네에서 30km, 60km 모르느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B씨를 수차례 가격했다.

A씨는 B씨가 손으로 머리를 막자 “왜 피하느냐. 머리 대라”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폭행으로 주행 중인 택시는 순간 휘청였고 B씨는 안경을 쓴 상태에서 얼굴을 수차례 맞아 상해를 입었다. 10여분간 이어진 A씨의 폭행은 B씨가 인근 지구대로 이동해 직접 신고를 한 후야야 멈췄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은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단순 폭행이 아닌 특가법 처벌 대상으로 처벌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